영암, 대불산단 효과 못본다

5천여 종업원들도 목포·무안서 숙식 해결…도움안돼

지방세 받는다지만 도로 보수 등 관리비 배나 더 들어

조선산업 활성화로 영암군 삼호면 대불국가산업단지 분양이 사실상 마무리됐으나 정작 영암지역은 기업 입주에 따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준공된 대불산단은 지난달 말 현재 입주율이 66%에 달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에는 입주율이 1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산단내 종업원 5천여명의 95%가 목포와 무안에서 출·퇴근 하는 등 지역 경제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영암군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불산단 입주업체들이 매년 20억원 상당의 지방세를 영암군에 납부하고 있으나 오히려 인건비와 지중화사업, 가로수 정비 등에 연간 40억 가량이 투자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산단 시설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산강하구둑에서 현대삼호조선소를 연결하는 4.5㎞의 대불로는 준공 10년이 지나면서 노면이 파이는 등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암군은 대불로 덧씌우기 공사비 22억원을 지원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해 왔으나 산업자원부는 이미 준공된 국가산업단지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설물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따라 영암군은 도비와 군비 11억원을 확보해 오는 26일부터 왕복 8차선 가운데 우선 하구둑 방향 편도 4차선만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착수한다.

전일영(62) 삼호읍 번영회장은 "대불산단 활성화에 따른 이익은 목포가 차지하고 영암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축내면서 관리만 맡고 있다"며 "하루 3만여대가 통행하는 대불로 보수 비용만이라도 중앙정부나 전남도, 목포시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강진 터미널 35년만에 신축 준공

지상 2층 복합건물

냉·난방시설 등 완벽

강진 공용터미널이 35년 만에 현대식 복합건물로 22일 준공됐다.〈사진〉

25억원이 투입된 강진 공용터미널은 전체면적 2천300여㎡에 지상 2층 건물로 1층 대합실과 2층 상가 및 사무실 등 복합건물로 지어졌다.

또 자동 냉·난방시설과 엘리베이터,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외벽은 컬러유리와 복합 알루미늄 패널,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옥상에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야간경관 조형물도 설치됐다.

지난 1972년 건립된 구 강진 공용터미널은 시설이 낡고 냉·난방 등 편의시설이 열악해 1일 3천여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70대 치고 달아난 운전자

구례경찰, 24일만에 검거

구례경찰서(서장 이희성)가 끈질긴 수사로 뺑소니 교통사고 범인을 24일 만에 검거했다.

지난달 25일 새벽 5시10분께 구례군 산동면 원촌리 온천휴게소 앞 19번 국도를 걸어가던 이모(남·77)씨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구례경찰서 수사팀은 사고지점 전후에 설치돼 있는 CCTV(폐쇄회로)에 찍힌 차량 통과시간을 역산(逆算), 사고 시간대에 통과한 화물차 등 165대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구례경찰은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해자 DNA와 일치한 최초 가해 차량 운전자 A모씨와 B모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보성 명물 메타세쿼이어 심어져 산책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보성군 미력면 메타세쿼이어 가로수가 빨갛게 물들어 늦가을 정취를 더하고 있다. 미력면에서 복내면을 연결하는 이도로는 20㎞ 구간에 메타세쿼이어가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보성녹차·벌교 참꼬막 서울 특판

신세계백화점서 농·특산물전 … 저렴한 가격 판매

보성녹차와 벌교 참꼬막 등 최고 품질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보성군 농·특산물전'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서 열리는 이번 산물전에는 보성의 대표 농·특산품 80여 개 품목이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판매 품목은 녹차와 녹차먹인 돼지고기인 녹돈, 오색쌀, 참꼬막, 어성초, 한과, 인절미, 녹차로 빚은 된장.고추장 등 올해 보성에서 생산된 최고품질의 농특산물이다.

특히 보성군과 백화점 측은 지난달 30일 보성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품 품평회를 열고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해 행사에 참여할 13개 업체를 선정했다.

행사기간 중 녹차 무료 시음회와 녹차인절미 체험행사, 녹차미인쌀 전시회도 함께 열리며 보성 차(茶)아가씨와 보성군청 간부공무원 부인들로 구성된 '비둘기회' 회원들이 홍보에 나선다.

보성군은 이번 행사가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서울과 수도권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은 이번 관촉전에서 1억원 상당의 농·특산물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농촌사랑 나무심기 운동'

농협-KT 나주지점 결연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지부장 나승운)와 KT 나주지점(지점장 안동천)이 1사1촌 결연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농협 나주시지부와 KT 나주지점은 지난 21일 결연마을인 나주시 경현동에서 농촌사랑나무심기 운동을 벌였다.〈사진〉

이날 농협 및 KT직원과 마을 주민 70여 명은 3천300여㎡의 휴경지(休耕地)에 감나무 등 유실수 500그루를 심었다. 농협 나주시지부와 KT는 농산물사주기운동을 벌이는 등 도·농 교류에도 앞장서고 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함평군 이젠 '별들의 고향'

올 軍 인사 4명 장군 승진

'나비 고을'인 함평이 '별들의 고장'으로 떠 오르고 있다.

올해 단행된 군 장성 인사에서 홍철유(신광면·육군)대령을 비롯해 서만열(학교면·육군), 정수(나산면·공군) 대령 등 함평 출신 4명이 장군으로 승진했다.

이에따라 김기수 중장(수도군단장), 김영춘 소장(1군 지원사령관) 등 현역 장성만 7명에 달해 별들의 고장이라는 명칭이 새롭게 붙게 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4만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자치단체에서 한꺼번에 장군 4명을 배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반겼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염업조합 이사장 퇴진요구 갈등

조합원들 "천일염 가격 하락 대책없다" 불만

대한 염업조합 일부 조합원과 천일염 생산자들이 박모(49)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원과 생산자 300여 명은 지난 20일 박 이사장이 경영하는 목포시 보광동 소재 D염업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올해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소금값 안정문제 및 유통질서를 회생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며 "천일염 가격 하락으로 염전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들은 "염업조합이 염(鹽)관리법 개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불법 소금유통단속권 등 후속 대책을 수립해야 하나 손을 놓고 있다"며 불만을 퍼뜨렸다.

특히 조합원들은 "이사장이 운영하는 PP(폴리 프로필렌=화학섬유) 포대 공장에서 만들어진 일부 포대가 생산자, 납세번호, 사업장명 등을 도용(盜用)해 외국산 소금이 국산 염으로 둔갑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8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단속에서 수입 소금 포대가 이사장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합원 이모씨는 "이사장이 조합을 이끌어나갈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빚만 늘어가는 등 조합이 존폐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제 18대 대한 염업조합 이사장에 당선된 박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10년까지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